

# 국어 영역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논제: 동물 실험은 중지해야 한다.

사회자: 찬성 측에서는 윤리적 측면에서 동물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인간과 동물의 생체적 차이를 근거로 들어 동물 실험 폐지를 주장했고, 이에 반대 측에서는 과학 및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측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찬성 측에서는 생명의 중요성을 들어 동물 실험을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도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물 실험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유용하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습니다. 가령 1885년 파스퇴르는 동물 실험을 통해 광견병 백신을 발견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개도 광견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의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인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동물 실험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반대 2: 동물 실험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동물 실험을 중지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기술적 대안은 있습니까?

찬성 2: 인간 세포를 배양해서 활용한 실험이나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한 실험이 현재 연구 중이므로 조만간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대 1: 아직까지 연구 중이라 하면, 현재로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군요.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 아닐까요?

사회자: 반대 측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현재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미 많은 대체 실험들이 실용화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회자: 자, 그럼 이제는 찬성 측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찬성 2: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이 인간을 대체할 만큼 인간과 유사한 생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반대 2: 동물 실험에는 주로 쥐나 토끼, 침팬지와 같은 척추동물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인간과 아주 유사한 생체적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찬성 2: 동물과 인간은 생체적으로 차이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2: 지사제의 일종인 '클리오퀴놀'은 동물 실험을 통과했지만, 1976년 일본에서 이 약을 먹은 1만 명이 시력 상실 또는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물에게는 안전하지만 인간에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자: 네. 양측의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락)

1.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

- ① 토론의 진행 절차에 따라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②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 주고 있다.
- ③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
- ④ 토론자의 불충분한 발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2. 위 토론의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2)

- ① 찬성 측은 동물 실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② 찬성 측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③ 반대 측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④ 반대 측은 동물이 인간보다 육체적 고통을 덜 느낀다고 주장한다.
- ⑤ 반대 측은 일부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3. <보기>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3)

< 보 기 >

(ㄱ) 1957년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한 우주견 '라이카'는 우주 공간에서 변화하는 맥박, 호흡, 체온 등 각종 생체 징후를 보내 생물체의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ㄴ)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은 고작 1.16%에 지나지 않으며 질병은 종(種)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에게 해가 없다고 해서 인간에게 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① (ㄱ)을 근거로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실험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겠군.
- ② (ㄴ)을 근거로 찬성 측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군.
- ③ (ㄴ)을 근거로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이 신약 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방법임을 주장할 수 있겠군.
- ④ (ㄱ)과 (ㄴ)을 근거로 찬성 측에서는 동물 실험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유용함을 주장할 수 있겠군.
- ⑤ (ㄱ)과 (ㄴ)을 근거로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군.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소영과 다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때 친구이다.

소영: ㉠다희야, 안녕! 요즘 어때? 입시 준비는 잘돼?  
 다희: 요즘? (한숨을 쉬며) 공부할 기분 아냐. 자꾸 짜증만 나.\_

소영: ㉡그리고 보니 너 최근에 얼굴을 찌푸리는 날이 많더라. 왜 무슨 일 있었어?  
 다희: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공부해야지.” 하시고, 휴식 좀 취하려고 음악을 들으면, 아빠는 또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냐?”라고 하시잖아.  
 소영: ㉢맞아,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다희: 너희 부모님도? 에이, 설마. 너처럼 모범생 딸을 두신 분들이 그러시겠어?  
 소영: ㉣모범생은 무슨 ... 우리 부모님께서는 철없는 어린이에 인걸. 그것도 다 나에 대한 관심이다 싶어. 고3인데 그런 말씀도 없으시면 서운할 것 같거든.  
 다희: 하기가 중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셔서 조금 서운하긴 했었어.  
 소영: ㉤거 봐. 그게 다 부모님의 애정과 관심이라니까. 이젠 인상 좀 펴라.  
 다희: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는 하는데,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답답해지네.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소영: 음 ... 부모님께서 왜 그러시는 것 같아?  
 다희: 글썄, 내가 별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소영: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부모님께서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냐?  
 다희: 사실은 오빠 대학 입시 때 부모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 그때 부모님은 열심히 한다는 오빠 말만 믿고 계셨다가 마음고생이 꽤나 심하셨거든.  
 소영: (다희의 손을 맞잡으며) 다희야, 부모님이 그러시는 건 네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어.

( A )

다희: 그러면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웃으며) 고마워, 소영아. 너밖에 없다.

4.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 A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4)

< 보 기 >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할 때에는 친구의 감정이나 처지를 살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우리 오빠도 네 오빠처럼 부모님 속 썩이다가 지금은 어엿하게 장남 역할을 잘하고 있어. 네 오빠도 곧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릴 거야.
- ② 그런 불안감은 네게도 전염될 수 있어. 그럴 때는 잠깐 바람이라도 쐬면서 입시에 대한 중압감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 ③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불안해하셔도 어차피 대학 입시를 치르는 건 우리잖아. 그러니 부모님 생각보다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
- ④ 그런 상황이라면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 계획을 세워 놓으면 어떨까? 네가 그 계획표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의 염려도 덜 수 있을 거야.
- ⑤ 부모님이 널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도록 해 봐. 그러면 아마 부모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야.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

- ① ㉠: 공통의 관심사를 언급하면서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 ② ㉡: 상대의 최근 모습을 환기하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유사한 경험을 제시하여 상대의 말에 호응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 ⑤ ㉤: 상대를 치켜세우며 상대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 있다.

[6~7] (보기 1)은 ‘가정 교육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논설문의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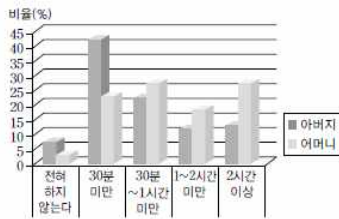
(가) 신문 기사

최근 청소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제도적 보완이나 법률의 제정보다도 가정에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청

소년 상담 센터 김○○ 연구원은 “요즘은 휴대 전화나 컴퓨터 등 자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매체가 넘쳐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덧붙여 자녀 교육이 가정 내에서 잘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설문 조사

1. 하루 중 부모님과 대화 시간



2.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다) 인터뷰

“아무리 좋은 교육법이 나와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 유대감을 높이고 대화했던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문화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선 부모의 59%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밥상머리 교육을 안다고 답한 사람도 예절 교육으로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모의 대화 태도가 중요한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억지로 예절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자녀의 인성 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절 교육 전문가

< 보기 2 >

주제: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 회복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자.

I. 서론

II. 본론

1. 실태

가. 매체의 발달로 인한 사회 문제 심각 ..... ㉠

나. 가정의 교육 기능이 점차 약화

2. 원인

가.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시간의 부족 ..... ㉡

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동의 관심사 부족

다. 자녀의 인성 함양을 위한 가정 교육 부재

3. 해결 방안 ..... ㉢

가.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시간 확보

나. 가정 내에서 자녀의 역할 회복을 위한 노력

..... ㉣

III. 결론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 촉구

..... ㉤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

- ① (가)를 활용하여 ‘II-1’을 작성할 때, ㉠은 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매체의 발달로 인한 자녀와의 대화 단절 심화’로 수정한다.
- ② (가)와 ‘(나)-1’을 활용하여, ㉡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시간 부족’으로 수정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의 하위 항목에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식사 예절 교육 강화’를 추가한다.
- ④ ‘(나)-2’를 활용하여, ㉣을 ‘가족 내 공동의 주제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수정한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을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기능 회복 촉구’로 수정한다.

7 <보기 2>의 ‘I. 서론’에 해당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7)

[조건]

\*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할 것.

\* ‘인과’에 따라 내용을 전개할 것.

- ①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약화된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② 요즘 청소년 게임 중독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는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놀이 문화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 ③ 최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가정 교육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청소년 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 ④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과거 밥상머리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밥상머리 교육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교육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8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보기>를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8)

< 보 기 >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필요 이상으로 정보가 차고 넘치는 정보화 사회이다. 현대 사회의 정보를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린다. 하나는 '정보의 바다'로 보는 시각이다. 정보의 바다에는 무궁무진한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넘쳐나는 현대 사회의 정보를 '정보 쓰레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또한 압동사니 정보에 파묻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통되는 정보량이 많다 보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정보가 변환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가 명확한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 건]

- \* 대상을 따라보는 대립된 관점을 대비한다.
- \*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 ① 현대 사회는 필요 이상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가 과잉으로 넘치다 보면, 유통 과정에서 정보가 변환되거나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 ②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범람하는 정보로 인한 폐해 때문에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③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양날스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게 되면 유통 과정에서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④ 현대 사회는 필요 이상의 정보가 범람하는 정보 과잉 시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황금시대이다.
- ⑤ 정보화 사회에서는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정보가 수많은 정보에 파묻힐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판적 안목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봉사 활동을 글감으로 하여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작문 일지)

오늘 작문 과제는 봉사 활동을 글감으로 한 자기 성찰의 글쓰기였다. 작문 과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생각해 보았다. 봉사 활동은 종류도 다양하여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침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재능 기부 다큐멘터리가 생각나서 재능 기부를 소재로 정하고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 고민했다. 그런 다음, 당시 프로그램 내용을 떠올리며 작문 계획에 따라 글을 써 보았다.

(학생의 글)

나는 지금껏 기부란 시간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재능 기부를 통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능 기부란 개인이 가진 재능을 개인의 이익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봉사 활동이다. 재능 기부가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다른 점은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 출연한 재능 기부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 구두 수선을 직업으로 삼았다는 출연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구두를 수선하거나 제작해 주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분은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남을 돕는 것이 유쾌하며 활짝 웃음을 지었다. ㉣재능 기부는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더 나은 기부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분을 통해 나는 시간과 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일도 봉사 활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누가 이런 재능까지 필요로 하겠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처지가 ㉤틀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 사람이 동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는 것,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모두 재능 기부이다. 나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지'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9)

< 보 기 >

- ㉠ 분류의 방식으로 봉사 활동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한다.
- ㉡ 개인의 경험을 떠올려 봉사 활동에 관한 글감을 구체화한다.
- ㉢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여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 ① a, d                      ② b, c                      ③ b, d
- ④ a, b, c                  ⑤ b, c, d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 ①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 ②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2문단의 맨 앞으로 옮긴다.
- ③ ㉢: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않으시나라고'로 고친다.
- ④ ㉣: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⑤ ㉤: 문맥상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다른'으로 고친다.

11. 다음의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의 표준어 발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11)

〈 보 기 〉

\* 표준 발음법 조항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예) 미닫이[미:다지] 발이[바치]
-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 (예) 굳히다[구치다] 단히다[다치다]

- ① 저 너머 모두가 우리 발이다.
- ② 그는 마음 발이 깨끗한 사람이다.
- ③ 체에 발인 짓국이 주방에 놓여 있다.
- ④ 발이랑에는 옥수수와 토마토를 심었다.
- ⑤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발혀서 꿈쩍을 못 한다.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12)

〈 보 기 1 〉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어근의 앞에 붙는 파생 접사가 접두사, 뒤에 붙는 것이 접미사이다. 접두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접두사 중에는 명사와 동사에 다 붙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한편 접미사는 접두사처럼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기도 한다.

〈 보 기 2 〉

- (가)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 (나) 그는 몰래 방 안을 엿보았다.
- (다) 마당에 지렁이가 뽕뽕거린다.
- (라) 우린 모두 헛고생만 했다.
- (마) 그는 새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

- ① (가)의 접미사 '-이'는 어근 '놀-'의 품사를 바꾸어 주고 있군.
- ② (나)의 접두사 '엿-'은 어근 '보-'에 특정한 뜻을 더해 주고 있군.
- ③ (다)의 접미사 '-거리다'는 어근 '뽕뽕'의 품사는 그대로 두고 특정한 뜻을 더해 주고 있군.
- ④ (라)의 접두사 '헛-'은 '헛듣다'를 고려할 때, 명사와 동사 모두에 붙는 접두사이군.
- ⑤ (마)의 접두사 '새-'는 어근 '빨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

13. 다음은 국어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13)

학생: 선생님, 문장에서 어떨 때는 '이예요'라고 쓰고, 어떨 때는 '에요'라고 쓰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뒤에 붙어서 설명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이예요'는 '이다'에 '-에요'가 결합된 것이고, '에요'는 '이예요'의 줄임말입니다. '에요'는 '이예요'에 비해 결합상의 제약이 있는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만 '에요'의 형태로 줄여 쓸 수 있어요. 즉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이예요'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 ① 새로 산 모자예요.
- ② 개울가의 울창이예요.
- ③ 저 아이가 제 동생이예요.
- ④ 이건 제가 심은 나무예요.
- ⑤ 저의 장래 희망은 경찰관이예요.

14.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 보 기 1 〉

국어의 부정 표현은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과 긴 부정으로 나뉘고, 의미에 따라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으로 나뉜다.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에,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에 쓰인다. 한편 '말다' 부정문은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사용되지 못하는 명령형과 청유형에서 사용된다. 일부 용언에서는 부정 표현에 제약이 있다.

〈 보기 2 〉

- ㄱ. 철수는 오늘 학교에 {안/못} 갔다.
- ㄴ. 영희는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못했다}
- ㄷ. 이번에는 수영장에 {(\*)안 가자/(\*)못 가자/가지 말자}.
- ㄹ. 저도 그 사실을 {(\*)안 모릅니다/모르지 않습니다}.
- ㅁ. 요즘은 가정 형편이 {안 좋다/(\*)못 좋다/좋지 않다/좋지 못하다}.
- ㅂ. 그 길이 {안 좁다/(\*)못 좁다/좁지 않다/(\*)좁지 못하다}.

(\* )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임.

- ① ㄱ은 짧은 부정인 반면, ㄴ은 긴 부정이다.
- ② ㄱ의 '안'과 ㄴ의 '않았다'는 의지 부정, ㄱ의 '못'과 ㄴ의 '못했다'는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 ③ ㄷ은 청유형 문장이므로 '안'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 대신 '말다' 부정문이 사용된다.
- ④ ㄹ의 '모르다'와 ㅁ의 '좋다'는 짧은 부정에 한하여 부정 표현이 가능하다.
- ⑤ ㅁ의 '좋다'와 달리 ㅂ의 '좁다'는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다.

15 <보기>의 답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5)

〈 보기 〉

철수: 선생님, 청소 시작할까요?  
 선생님: 그러자. (두리번거리며) 그런데 핵구는 어디 있지?  
 철수: 핵구는 아까 가방 들고 나가던데요?  
 선생님: 뭐야?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녀석 정말 ...  
 철수: 선생님, 제가 대신 할게요. ㉡이 자리가 핵구 청소 구역이죠?  
 선생님: 그래, 고맙다. ㉢거기 맞아. (피득 떠오른 듯이) 참, ㉣그 일은 잘 해결되었니?  
 철수: 선생님 조연대로 했더니 ㉤그 일은 잘 해결되었어요. 다행히 오해가 풀려 영희랑 화해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영희와 다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이구나.  
 철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 드려요.  
 선생님: 철수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지. 철수야, ㉥저기도 청소해 줄래?  
 철수: 쓰레기통 주변 말씀하신 거죠?  
 선생님: 응, 그래. 그럼 수고하렴.

- ① ㉠과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야기의 장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과 ㉤은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을 통해 지칭 대상이 선생님보다 철수에게 더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과 ㉤을 통해 선생님과 철수가 동일한 시·공간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과 ㉥을 통해 영희와 다투었던 철수의 경험을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16)

〈 보기 1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의문문을 나타내는 형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의문사가 없는 관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ㄱ'나 'ㄷ'의 형태인 반면,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고'의 형태로 끝맺는다. 한편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ㄴ다'의 형태가 사용된다.

〈 보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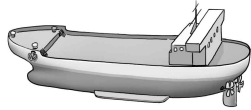
- ㄱ. 서경은 평안한가 물흔가 (서경은 평안한가 못한가)? (두시언해 18, 5)
- ㄴ. 고원은 이제 엇더흔고 (고원은 이제 어떠한가)? (두시언해 25, 24)
- ㄷ. 네 옛테 안다 (너는 어찌 알았느냐)? (월인석보 23, 74)

- ① 민형: ㄱ의 '물흔가'와 현대 국어 '못한가'를 비교해 보니 의문사가 없는 경우 둘 다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의 형태가 같군.
- ② 채은: ㄴ의 '엇더흔고'와 현대 국어 '어떠한가'를 비교해 보니, 의문사가 있을 경우 중세 국어의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의 형태가 현대 국어와 다르군.
- ③ 영문: ㄴ의 '고원은'을 '네(네가)'로 바꾸게 되면, 의문문의 형태가 달라져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ㄱ'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군.
- ④ 성환: ㄷ은 주어가 '네'인 점으로 보아 '-ㄴ다'가 현대 국어와 달리 특이하게 의문문에 사용된 예이군.
- ⑤ 소영: ㄷ의 주어인 '뜨리(딸이)'로 바꾸면, ㄴ과 마찬가지로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고'의 형태로 나타나겠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배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는 장치는 ‘빌지킬’, ‘안티롤링 탱크’, ‘핀 안정기’ 등 세 가지이다.

‘빌지킬’은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장치로



균함뿐만 아니라 많은 배들이 사용하고 있다. 빌지킬은 물에 잠기는 배의 측면에 붙이는 얇은 판을 가리킨다. 빌지킬을 갖춘 배는 얇은 판이 배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빌지킬이 있으면 배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왼쪽에 있는 빌지킬로 인해 물과 접촉해서 생기는 마찰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배는 원 위치로 되돌아가게 되므로 배의 흔들림은 줄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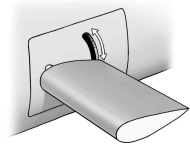
빌지킬이 배의 크기와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는 장치라면 ‘안티롤링 탱크’는 큰 배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치이다. 안티롤링 탱크는 커다란 U자형 관을 배 안쪽에 설치하고 그 안에 물을 채워둠으로써 흔들림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U자형 관 안에 있는 물도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U자형 관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의 기울어진 방향과 U자형 관 안의 물의 위치가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물은 오른쪽에 있고,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물이 왼쪽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배가 기울어지는 방향과 반대쪽에 있는 물의 무게가 배를 눌러줌으로써 원 위치로 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물이 이동하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배가 기울어지는 방향과 U자형 관 안에 있는 물이 같은 방향에 있게 되면 오히려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설치되는 안티롤링 탱크는 펌프를 이용하여 U자형 관 안에 있는 물의 양과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 맞추어 배가 흔들리는 것을 줄이고 있다.

빌지킬과 안티롤링 탱크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장치라면 최근에 개발된 장치는 ‘핀 안정기’이다. 배 양쪽에 비행기 날개 모양으로 달려있는 장치가 핀 안정기이다. 물체가 움직일 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양력이라 부르는데 핀 안정기는 날개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한다.

그림에서 보듯 핀 안정기의 앞쪽은 배에 고정되어 있지만 뒤쪽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배의 앞쪽에서 바라볼 때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 핀 안정기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이고, 오른쪽 핀 안정기의 뒤쪽은 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왼쪽 핀 안정기 아래쪽의 물의 흐름은 느려지고 위쪽은 빨라지면서 핀 안정기 아래쪽의 압력이 위쪽보다 높아진다. 이 압력차로 인해 왼쪽 핀 안정기에서는 위로 양력이 작용하고,



반대로 오른쪽 핀 안정기에서는 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여 배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7)

- ① 빌지킬은 양력을, 핀 안정기는 마찰 저항을 이용한다.
- ② 빌지킬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흔들림 방지 장치이다.
- ③ 안티롤링 탱크는 규모가 큰 배들이 사용하는 장치이다.
- ④ 흔들림 방지 장치 중에 핀 안정기는 최근에 개발된 것이다.
- ⑤ 안티롤링 탱크는 U자형 관 안의 물이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한다.

18. 위 글을 읽은 사람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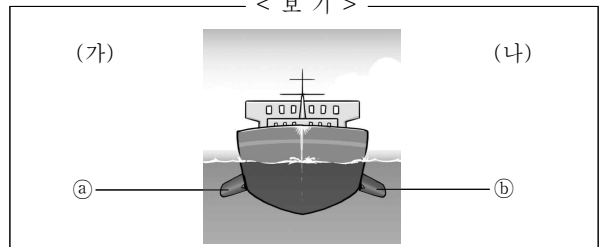
< 보기 >

과도의 움직임에 따라 배의 흔들림이 시작되자 선장은 선원을 모두 갑판 위로 모이도록 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모두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 ① 빌지킬이 있었다면 선원들의 움직임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겠군.
- ② 선원들의 움직임이 양력을 발생시켜 배의 흔들림이 줄어들었겠군.
- ③ 핀 안정기의 역할을 했던 선원들로 인해 배의 속도가 빨라졌겠군.
- ④ 선원들을 양쪽으로 동시에 고르게 분산시켰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었겠군.
- ⑤ 선원들이 U자형 관 안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의 흔들림이 줄어들었겠군.

19. <보기>의 ㉠와 ㉡는 배의 앞쪽에서 바라본 핀 안정기를 그린 것이다. 배가 (가) 방향으로 기울 때 원 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핀 안정기의 움직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9)

< 보기 >



- ① ㉠와 ㉡의 뒤쪽은 모두 위로 움직인다.
- ② ㉠와 ㉡의 뒤쪽은 모두 아래로 움직인다.
- ③ ㉠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이고, ㉡의 뒤쪽은 위로 움직인다.
- ④ ㉠의 뒤쪽은 위로 움직이고, ㉡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인다.
- ⑤ ㉠의 뒤쪽은 위와 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의 뒤쪽은 움직이지 않는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20)

- ① 조절(調節)하여                      ② 조성(造成)하여
- ③ 조율(調律)하여                      ④ 조종(操縱)하여
- ⑤ 조치(措置)하여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이러스는 보통 세균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단백질과 핵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할 때는 숙주\* 세포 내의 효소와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물질대사를 하고 증식을 하는 등 생물학적 특성을 보인다.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다른 생물을 이용하는 데만 그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생’이라는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은 필연적으로 숙주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숙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일까? 바이러스는 먼저 자신의 숙주가 되는 미생물, 식물, 동물 등의 세포 표면에 달라붙어 유전 물질을 세포 내로 들여보낸다.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간 유전 물질은 숙주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구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낸다. 바이러스는 이 효소들을 이용하여 유전 물질을 대량 복제하며, 복제된 유전 물질로부터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합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조립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완성된다. 이때 하나의 숙주 세포에서 복제되는 바이러스 수는 엄청나다.

(다) 이렇게 증식한 바이러스들은 숙주 세포를 뚫고 밖으로 나와 주변의 다른 숙주 세포들로 다시 침투한다. 물론 이때 기존의 숙주 세포는 죽는다. 만일 숙주가 사람이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많은 수의 숙주 세포가 파괴되어 수두, 유행성 눈병, 독감, 에이즈 등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게 된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세균에 의한 질병과 달리 치료약이 별로 없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려면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하는데 숙주 세포를 그대로 둔 채 바이러스만 죽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라) 그러나 최근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물체의 유용한 DNA\*를 유전자 운반체에 끼워 넣어 재조합 DNA를 만든 후 대장균과 같은 숙주 세포에 삽입하여 유용한 유전자를 합성하는 것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이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의 세포 표면에 달라붙은 다음 자신의 유전 물질을 세균 세포 내로 들여보내 대량으로 증식한 뒤 결국 숙주를 파괴하고 나오게 된다.

(마) ㉠ 현대 의학은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을 얻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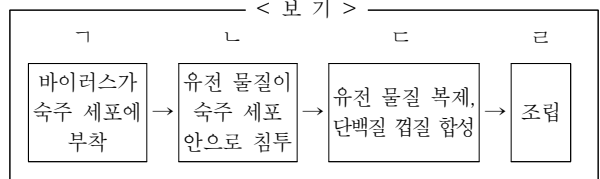
해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다. 박테리오파지에 인슐린 합성에 필요한 DNA를 끼워 넣어 이를 대장균에 집어 넣어 복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인슐린을 얻어내 인슐린 주사를 만든다. 인슐린 주사는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하는 정도 이긴 하지만, 동물에게서 인슐린을 얻어내던 기존의 치료 방식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주원인이고 숙주 세포를 파괴하는 등 부정적인 존재로만 여겨지던 바이러스가 현대 의학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숙주 :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생명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생물.  
 \*\* DNA :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안 염색체의 중요 성분을 이루는 유전자 본체.

2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1)

- ① (가) :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 바이러스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라) :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 바이러스가 지닌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로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22)



-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에 활용되는 유전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②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할 때, ㉡의 과정까지 바이러스는 유전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 ③ ㉡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만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는 바이러스에 힘을 가하여 대량 증식을 일으키게 한다.
- ⑤ ㉣은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23 ㉠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할 때 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3)

< 보 기 >

당뇨병은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 유전자 이상이 생겨 인슐린을 충분히 합성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 병이다. 그러므로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이상이 생긴 유전자 대신 인슐린을 원활하게 합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췌장의 베타 세포에 주입해 주어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 ㉠ 바이러스를 이용한 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아직까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 인슐린 합성의 양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바이러스를 활용한 당뇨병 치료 연구의 궁극적인 과제이다.
- ㉢ 박테리오파지로부터 숙주 세포에 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겠다.
- ㉣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당뇨병 치료의 효과를 얻으려면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숙주 세포를 찾아야겠다.
- ㉤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DNA를 재조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각과 지각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감각을 지각으로 바꿔 놓는가? 감각은 그 자체로서는 단지 자극에 대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경험의 시작 단계로 그것 자체로는 아직 인식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각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대상-예컨대 사과-의 둘레에 모였다고 하자. 코의 후각, 혀의 미각, 망막의 시각, 형태를 알아내는 손가락과 손의 촉각을 이 사물의 둘레에 모이게 하자. 그러면 이제 자극에 대한 의식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대상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지각이 생긴다. 감각이 인식으로 옮겨 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행은 자동적인가? 여러 가지 감각이 저절로 모여서 질서를 갖추고 지각이 되는가? 경험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감각은 피부와 눈과 귀와 혀로부터 뇌에 이르는 무수한 신경을 통해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되는 감각들은 그냥 놓아두면 끝까지 오합지졸이며 혼돈의 '다양'에 지나지 않는다. 전선의 무수한 지점으로부터 한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저절로 이해되어 명령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 오합지졸, 곧 감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감각을 취사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이 있다.

칸트는 우선 모든 보고가 반드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의 목적에 알맞은 지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감각만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어도

들리지 않다가 우리의 목적에 시계 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시계 소리가 전보다 커진 것도 아닌데 들리게 된다. 감각은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심부름꾼을 선택하고 부리는 사람, 즉 그들의 주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칸트는 두 가지 인식의 틀, 곧 ㉠공간과 시간을 통해 감각이라는 자료를 정리한다고 생각했다. 장군이 제출된 보고를 발신 장소와 작성 시간에 따라 정리하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을 공간과 시간 속에 배열하고 여러 가지 감각을 여기의 이 대상, 저기의 저 대상, 현재 또는 과거에 귀속시킨다. 이 때 공간과 시간은 지각된 사물이 아니라 지각의 방식, 감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이미 정돈되었거나 앞으로 정돈될 모든 경험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고 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은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 경험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 및 시간의 법칙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불변한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경험주의자들과 달리 우리가 경험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에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 것, 즉 인식 주체가 있음을 밝혔다.

24 위 글의 서술 전략과 관련이 없는 것은?24)

- ㉠ 개념의 변화 과정을 통해 주장을 강화한다.
- ㉡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여 화제의 이해를 돕는다.
- ㉢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견해의 타당성을 높인다.
-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 ㉤ 대상에 대한 접근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논점을 분명히 한다.

25 <보기>에 대해 칸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5)

< 보 기 >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과 감각을 통해 획득된다. 태어났을 때의 인간의 정신은 백지(tabula rasa)이고, 여기에 감각적 경험이 다양한 방법으로 글씨를 써서 마침내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기고 기억으로부터 관념이 생긴다.

- ㉠ 당신은 지각이 도리어 경험과 감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군요.
- ㉡ 당신은 관념이 형성되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군요.
- ㉢ 당신은 인간에게 경험이나 감각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군요.
- ㉣ 당신의 말과 달리 기억에서 관념이 생기고, 관념에서 기억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 ㉤ 인간은 성장하면서 경험과 감각을 정돈하는 능력이 서서히 계발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6)

- ① 경험의 내용에 좌우되지 않는다.
- ②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불변한다.
- ③ 지각된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한다.
- ④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의식을 가능하게 한다.
- ⑤ 감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 보면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게가 모여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져 상품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게들이 모여 있으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어 오히려 이익이다. 그렇다면 모여 있는 가게가 단독으로 있는 가게보다 어떻게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일까?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입하려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고, 이 정보를 통해 편익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편익이란 탐색 행위를 통해 같은 상품을싼 가격에 사거나, 같은 값에 질이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정량의 정보 탐색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살 때, 1만 원의 비용으로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해서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3만 원 싸게 구입했다고 하자. 소비자는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하여 2만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컴퓨터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던 소비자가 정보를 처음 얻게 되었으므로 이때의 이익은 크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또 1단위의 정보를 추가로 탐색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정보를 더 얻을수록 상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현재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드는 탐색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반해, 그에 따르는 추가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할 때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가하고 절약하는 돈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의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 한 단위를 더 탐색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계 편익’이라고 하고, 이때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적절한 정보 탐색 행위의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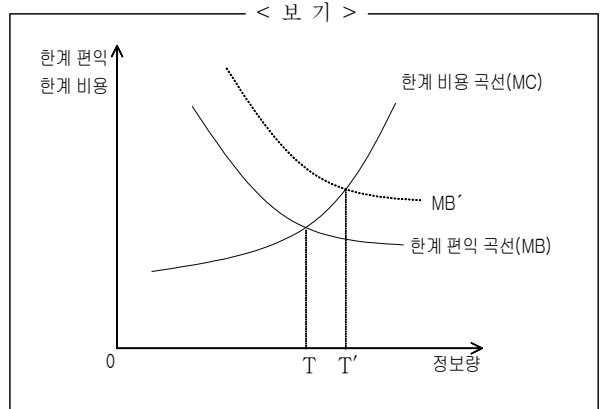
소비자는 정보 탐색 행위를 할 때 같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나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가 모여 있는 곳이 같은 정보 탐색 비용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어 시장과 백화점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것이다.

27.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27)

- ① 사례 분석을 통해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현상과 관련된 사례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③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사례로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⑤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과 대비되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2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8)



- ① 탐색 행위로 얻은 정보량이 T\'일 때의 한계 편익은 정보량이 T일 때의 한계 편익보다 작다.
- ② T보다 적은 정보량을 지닌 소비자는 정보량이 T가 될 때까지 탐색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 ③ 한계 편익 곡선 MB가 MB\'로 이동하면 동일한 정보량으로 더 많은 한계 편익을 얻게 될 것이다.
- ④ 단독 가게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백화점을 이용하게 되면 한계 비용 곡선 MC는 왼쪽 위로 이동하게 된다.
- ⑤ 동일한 비용으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 한계 편익 곡선 MB는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된다.

2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29)

- ①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편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②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③ 정보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정보를 추가 탐색하면 정보 과잉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30. 밑줄 친 부분 중, ㉔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30)

- ① 별 힘을 쓰지 않고서도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 ② 충동을 누른 힘이 서서히 고통으로 바뀌었다.
- ③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 ④ 힘만 가지고는 장풍을 옮길 수 없다.
- ⑤ 선생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前灘富魚蝦 앞 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有意劈波入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 있는데  
 見人忽驚起 사람 보고 문득 놀라 일어나서는  
 蓼岸還飛集 여뀌꽃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앉았네  
 翹頸待人歸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  
 細雨毛衣濕 ㉔가랑비에 털옷이 다 젖는구나  
 心猶在灘魚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있는데  
 人猶忘機立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을 잊고 서 있다고  
 - 이규보, 「여뀌꽃과 백로(蓼花白鷺)」 -

\*기심 : 기회를 엿보아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나)

우뚝이 곧게 서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에 알 이 있어 찾아오랴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상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런가  
 왕기순인(枉己順人)\*하여 내 어테 옮겨 가료  
 산 좋고 물 좋은 골에 삼긴 대로 늙으리라 <제6수>

천황씨(天皇氏) 처음부터 이 심산에 혼자 있어  
 너 보고 반기기를 몇 사람 지냈던고  
 만고의 허다 영웅을 들어 보려 하노라 <제7수>

소허(巢許)\* 지낸 후에 엄 처사\*를 만났다가  
 아쉽게 여의고 알 이 없이 버려 있더니  
 오늘사 또 너를 만나니 시운인가 하노라 <제8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立巖二十九曲)」 -

\* 왕기순인 :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 소허 :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상고 시대의 대표적인 은자(隱者).  
 \*\*\* 엄 처사 : 엄자릉(嚴子陵). 한나라 광무제 때의 은자(隱者).

31.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31)

- ① (가)는 (나)와 달리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인화된 대상을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에는 모두 대상을 본받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과의 친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모두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32. 시어나 시구를 중심으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32)

- ① ‘물고기’와 ‘새우’는 백로 입장에서 욕망의 대상이다.
- ② 백로는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③ 백로가 ‘여뀌꽃 핀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 ④ ‘사람들’과 화자 모두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 ⑤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기심’을 잊지 못해서이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3)

< 보 기 >

박인로의 ‘입암이십구곡’ 중 여기에 제시된 <제6수>와 <제8수>에는 ‘바위가 답함[암답(巖答)]’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화자와 바위가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시상 전개상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① <제5수>에 사용한 설의법을 <제6수>에서도 구사하여 두 수의 긴밀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제5수>와 <제6수>는 각각 바위의 위치에 대한 화자와 바위 사이의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있다.
- ③ <제6수>에서 화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바위의 입장을 제시하여 세속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화자가 궁금하게 여긴 내용에 대해 <제8수>에서는 바위의 입장에서 풀어주고 있다.
- ⑤ <제8수>에서 ‘만고의 허다 영웅’에 ‘너’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위의 고고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 물었다.  
 “네가 우치라 하니, 대국에 가서 무슨 장난을 하였기에 황제가 조서(詔書)를 내려 우리나라에까지 폐가 되게 하는가?”  
 우치가 대답했다.  
 “소신이 황제를 속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조선을 소국이라 하여 대양 업신여기웁기로 소신이 비록 어리고 철이 없사오나 그 일이 통분하여, 대국에 들어가 여차여차한 일로 황제를 속이고 재주를 발휘하여 대국의 위엄을 꺾으려 한 것일 뿐, 다른 일은 없사옵니다. 그러나 소신을 아무리 잡으려 하여도, 대국의 힘으로는 잡을 길이 없으즉 분함을 이기지 못해 본국으로 사신을 보낸 것이옵니다.”  
 임금이 듣고 말했다.  
 “너의 재주가 그러하면 한번 구경하고자 하니 시험하여 특별히 재주를 보여 주면 네 원대로 하리라.”  
 하신데 우치가 아뢰기를,  
 “신의 재주를 구경하시려 한다면 시험하려니와 전하께서 놀라실까 하나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시험하라.”  
 우치가 재주를 행하는데,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되었다. 임금이 괴이히 여기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명랑하였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명경창과 가운데 자신이 한 조각의 배를 타고 앉았는데, 배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 임금이 크게 놀라 생각하기를, ‘이 몸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으며, 배에는 사공도 없으니 장차 어디로 갈꼬?’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천지를 분간치 못하였다. 그런데다 풍랑까지 심하여 배가 물결을 따라 물속으로 거의 잠기게 되었다. 임금은 정신이 혼미하여 낮이 몸에 붙지 아니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하릴없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맑은 하늘이 아시거든 남은 목숨을 지켜 주소서.”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문득 동쪽 언덕으로부터 피리부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 바라보니 한 척의 작은 배가 들어왔다. 그 가운데 연발 따는 선동이 머리에 연꽃을 꽂고 피리를 불며 들어와 배를 한 데 대고 사례하기를,  
 “전하께서 이렇듯이 심려하사 오죽 놀라셨겠습니까?”  
 하고, 술 항아리를 기울여 옥잔에 가득 부어 올렸다. 임금이 얼떨결에 반겨 묻기를,  
 “나는 우연히 이곳에 왔다가 풍랑을 만나 하마터면 죽을 것을 선동이 구해주고 술을 권하니 감사하거니와, 알지 못하였도다. 선동은 누구라 하고요?”  
 하며 받으니, 동자가 대답했다.  
 “소동은 옥황상제께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귀양 와서 전첩사(田僉使)의 아들이 되었사온데 마침 이 곳을 지나가다 왔사오니 염려 마옵시고 뱃놀이나 하사이다.”  
 이어 피리 소리 한 곡조에 사면으로부터 선녀와 선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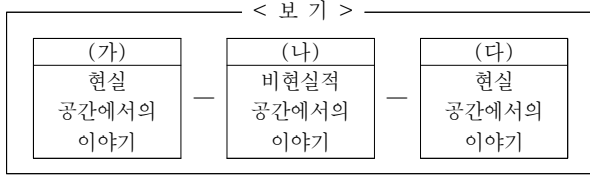
무수히 다가오고 있었다.

**[중략 줄거리]** 선관과 선녀들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왕은 전생에 그들과 벗이었음을 알게 된다.

임금이,  
 “묻노니, 우치는 어떠한 사람이고?”  
 하니, 선관이 말했다.  
 “우치는 손오공이라. 하늘 나라와 지하와 수궁을 모두 출입하는 재주를 품었으니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는 때가 늦어서 돌아가니 이후에 다시 만나자.”  
 이어 잔치 끝내는 노래를 피리로 불며 이별하거늘 임금이 바라보니, 선관 선녀들이 각각 배를 띄우고 가는데, 풍량이 크게 일어나고 채색 구름이 두르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어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이윽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며 햇빛이 빛나니, 임금이 그제야 살펴보았다. 그 사이에는 만첩태산이 둘러 있고 층암절벽이 반공에 달렸는 듯한데, 굽은 노송은 광풍에 흐트러져 넓은 바위를 덮은 가운데 자신이 홀로 앉아 있었다. 임금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아까 풍랑 중에 죽을 것을 선동이 구하여 살아났더니, 알지 못하겠도다, 어찌 이곳에 왔는고? 그러나 인적이 없고 산세는 험하니 가히 슬프도다.’ 하며, 장차 돌아갈 길이 아득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뜻밖에 백호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기에, 임금이 놀라 엎드려졌다. 그때 선녀들이 모셔다가 놀라 붙들어 앉히자, 임금이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은 전상(殿上)의 왕좌에 앉아 있는데, 주위의 여러 신하가 시위하고, 우치가 땅에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반드시 잠을 들어 괴이한 춘몽을 꾸었도다.’ 하시고, 신하들더러 물었다.  
 “과인(寡人)이 그 사이에 잠을 들었던가?”  
 여러 신하가,  
 “전하께서 잠드신 적 없사옵니다.”  
 하고 아뢰거늘, 임금이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시더니 우치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여 아뢰었다.  
 “전하께서는 영주(瀛州) 삼신산(三神山)을 보시니 어떠하십니까? 그러하오나, 바다 가운데서 풍랑에 고생을 하시고 봉래산(蓬萊山) 바위 위에서 백호를 만나시니 두렵지 아니하십니까?”  
 임금이 그제야 우치의 도술에 속은 줄 알고, 크게 칭찬하기를,  
 “너의 재주는 진실로 고금에 없도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 34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sup>34)</sup>
- ① 전우치는 대국의 황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 ② 신하들은 임금의 꿈에서 선관과 선녀로 등장하고 있다.
  - ③ 임금은 전우치의 재주를 시험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 ④ 황제가 내린 조서에는 전우치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 ⑤ 전우치는 임금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재주를 뽐내고 있다.

35 위 글을 <보기>와 같은 구조로 이해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sup>35)</sup>



- ① (가)에서 임금이 전우치의 재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나)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곧바로 연결되고 있다.
- ③ (가)에서 전우치가 대국을 속인 이유가 (나)에서 비범한 행위의 나열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④ (나)에서 바다에서 산으로 공간이 급작스럽게 바뀐 것은 작품의 비현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가)에서 유보된 전우치에 대한 임금의 평가가 (나)를 근거로 (다)에서 확정되고 있다.

36 [A]의 발화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sup>36)</sup>

- ① 상대방의 경험을 꿰뚫어 보면서 상대방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군.
- ② 상대방이 경험한 공포감을 자극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군.
- ③ 상대방이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군.
- ④ 상대방이 경험한 일이 자신이 꾸민 일임을 일깨워 상대방에게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군.
- ⑤ 상대방이 경험한 일을 떠올리게 하여 그 일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려 하는군.

37 ㉠에서 임금이 처한 상황을 알맞게 표현한 것은? <sup>37)</sup>

- ① 백척간두(百尺竿頭)                      ② 풍비박산(風飛雹散)
- ③ 천재일우(千載一遇)                    ④ 고군분투(孤軍奮鬪)
- ⑤ 흥진비래(興盡悲來)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식은 중학교 때 전국 백일장에서 신중한 문체로 심사 위원들을 놀라게 했고, S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최연소로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지금은 판사를 하고 있다.

벽시계가 자정 5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 명식은 아직도 돌아오는 기척이 없다. 지연은 다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멍한 얼굴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앉아 다시 바깥 기척을 지키기 시작한다.

..... 이웃에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명식이 전혀 딴 얼굴 모습으로 대문을 나서는 걸 보았노라고도 했고, 어떤 낮 모를 사내가 지연이네 대문 앞에서 머뭇머뭇 서성거리고 있는 걸 보았는데, 나중에는 그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대문 안으로 사라져 들어가는 걸 보고 적잖이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노라고도 했다. 명식이 변장을 하고 해괴한 바깥 나들이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지연은 차츰 명식의 거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과연 밤 외출이 늘고 있었다. 비로소 관심이 가기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딱할 정도로 피곤해져 있곤 했다. 대문을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날개 꺾인 새처럼 늘 힘이 없었고 죄지는 아이처럼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말수도 훨씬 적어진 듯했고 영문 모를 신경질 같은 것이 돌아 있을 적도 있었다. 피곤한 귀가의 연속이었다.

그런데도 명식은 저녁이 끝나면 늘 밤 외출을 서둘렀다. 언제 어떻게 대문을 나간지도 모르게 혼자 살짝 짐을 빠져나갔곤 했다. 2층 서재뜰에서 피로를 풀고 있으려니 싶다 보면 어느새 정원의 외등이 꺼져 있곤 했다. ㉠ 밤 외출을 나갈 때는 반드시 외등을 끄고 나서 현관을 나서는 버릇 역시 짐작이 가는 데가 있는 일이었다.

그의 변장은 그런 밤 외출 때만도 아닌 듯했다. 외출이 없는 날도 그는 저녁을 끝내자마자 곧장 2층으로 올라가 혼자 서재 속에 깊이 파묻혀 버리기 일쑤였다. 혼자 좀 조용히 쉬고 싶다는 게 그때마다의 그의 핑계였다.

그러나 지연은 알고 있었다. 명식이 그렇게 서재 안에 파묻혀 있을 때에도 그가 가발을 쓰고 콧수염을 붙이고, 어쩌면 그의 얼굴을 가장 잘 감춰줄 수 있는 안경까지 걸쳤을 모습이 자주 상상되곤 했다. 그런 식으로 변장을 하고 그는 자기 가면 뒤에서 정말로 조용한 휴식을 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지연이 명식의 변장한 얼굴을 본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의 기벽을 발견한 그 첫날 한 번뿐이었다. 그런데 그 첫 번이 중요했다. 지연은 그 첫 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의 명식은, 가면이 된 그 명식의 얼굴은 속속들이 스며든 피로를 한 오라기 한 오라기씩 조심스럽게 씻어 내면서 조용한 휴식에 젖어 있는 모습이 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연은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더 피곤해져서 대문을 들어서는 명식의 얼굴 모습과, 그 얼굴을 가면 뒤에 감춘 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날의 모습이 겹쳐 이상스러운 만큼 절실한 남편의 휴식과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휴식과 위안이기도 했다.

명식의 변장에서 지연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동정과 스스로의 감동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연은 명식을 방해하지 않았다. 해괴한 느낌은 어느새 말끔히 가서 나갔다. 오히려 그의 변장을 돕고 나섰다. 명식이 2층 서재로 들어박히는 것을 절대 아는 체하지 않았다. 밤 외출의 유혹을 느끼는

눈치가 보이면 외등을 끄고 자신이 침실로 숨어 들어가 버림으로써 은밀스럽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면 명식은 영락없이 혼자 대문을 빠져나갔고, 그 가면의 외출에서 그는 퇴근 때의 피곤기와 짜증스런 신경질을 말끔히 씻고 돌아왔다. 물론 지연은 밤 외출에서 돌아오는 명식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도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대문을 들어서는 그의 표정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날 밤이면 거의 빠짐없이 어둠 속으로 2층 나무 계단을 내려와 비로소 그녀를 발견한 듯 한껏 다감해지고 한껏 활력에 찬 잠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 저래 명식의 밤 외출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2층 서재로 숨어 들어가 그의 가면 뒤에서 이상스런 휴식에 젖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무실에서 물어온 피곤기를 가면 위에서 말끔히 씻어 낸 다음 지연을 찾아 밤늦은 2층 계단을 내려오곤 했다. 그는 분명 그 가면 뒤에서라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어쨌든, 이제 지연이 명식을 속속들이 다 만나는 것은 그가 그 밤 외출에서 이상스런 방법으로 피로를 씻고 새 힘을 얻어 돌아오는 날뿐이었다.

그리고 지연에게도 이윽고 한 가지 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식을 만나고 싶은 밤의 소망은 반드시 그의 가면을 연상시켜 주곤 했다. 지연은 명식의 가면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식의 가면을 만나고 싶어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의 가면이 어느새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어찌 된 일인지 그녀는 그 명식의 동기까지를 포함하여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수긍해 가고 있었다. 명식에게도 혹시 그런 기미가 엿보였기 때문일까. 지연은 이제 오히려 명식의 맨 얼굴 쪽에서 어떤 불편스런 가면이 느껴지고 있을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이 맨 얼굴로 대문을 들어설 때의 표정이야말로 영락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뻣뻣하고 변화 없고 그리고 모종 뻘뻘스런 피곤기 같은 것이 온통 그를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토록 익숙해진 명식의 가면을 아직도 똑똑히 본 일이 없었다.

그 첫 날 한 번밖엔 명식이 자기 가면 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진짜 자신의 얼굴이나 되는 양 익숙해져 버린 가면으로 의기양양 밤 외출에서 돌아오곤 할 명식을 다시 본 일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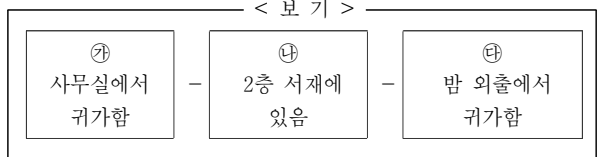
지연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명식의 얼굴을 자신 속에 깊이 지녀버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그것을 만나고 싶은 밤이 많았다. 이날도 지연은 그런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 이청준, 「가면의 꿈」 -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8)

- ①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여 사건 흐름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들을 현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제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39. <보기>는 위 글을 ‘명식’의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9)



- ① 지연은 점차 ㉠보다는 ㉢에서의 명식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② 지연은 ㉡뿐만 아니라 ㉢일 때도 명식이 가면을 쓴다고 믿고 있다.
- ③ 지연은 명식에게 ㉡에서는 동정을, ㉢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 ④ 지연은 ㉢에서의 명식의 심리 상태가 ㉡에서보다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 ⑤ 지연은 ㉢에서의 명식의 행동이 ㉡에서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40.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0)

- ① 명식은 현재의 삶에 대해 성찰을 하고 있다.
- ② 명식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비판하고 있다.
- ③ 명식과 지연이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 ④ 명식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 ⑤ 명식은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명식'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41)

< 보 기 >

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페르소나(persona)'와 '그림자(shadow)'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로지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그림자가 위축되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지만,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 깊은 정서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

- ① 명식은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가면을 쓴다고 할 수 있겠군.
② 명식은 현재의 페르소나 측면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라고 믿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③ 명식이 페르소나 측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을 멀리한다고 할 수 있겠군.
④ 명식은 페르소나 측면이 그림자 측면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
⑤ 명식이 변장하는 행위는 그림자 측면을 보완하여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할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우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든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고만 발자욱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나리리라.

- 윤동주, 「눈 오는 지도」 -

(나)

갑나무쭝 되라,

- [A]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벌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 [B]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벌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 그러나 그 사람이
[C]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D] 전생의 내 숲(전) 설움이요 숲(전)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E]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도 몰라, 그것을 몰라!

- 박재삼, 「한」 -

(다)

거기 나무가 있었네.
노을 속엔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 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발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희미한 하류로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일만 마리 매미 소리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네.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그늘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빨기풀이고 뜬부기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렸지만
등치마저 타 버려 재가 돼 버렸지만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스쳐가는 늦기러기 몇 마리 있으리.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 이진청, 「하류」 -

42.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2)

- 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②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③ 과거 회상을 통해 고조된 정서가 나타나 있다.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⑤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43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3)

< 보 기 >

(가)는 '눈(雪)'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이별의 안타까움과 지속되는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 ①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순이와의 이별에 직면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 ②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라고 하였으므로, ㉡은 화자의 상상 속에서 내리는 눈이겠네요. 이것은 '벽과 천정'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이별로 인한 공허함을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 ③ 순이의 '쫓고만 발자욱'을 '자꾸 내려' 덮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은 순이를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같아요.
- ④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으로 보아, ㉣은 순이가 있는 곳으로 화자를 안내하는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⑤ '일 년 열두 달 하냥'으로 보아, ㉤은 순이를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심정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4 시인이 (나)를 창작하면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4)

- ① [A]에는 '열매'에서 연상된 빛깔에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야지.
- ② [B]에는 나뭇가지가 '번어가'는 형상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해야지.
- ③ [C]에는 '그러나'를 통해 소망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야지.
- ④ [D]에는 '새로 말하면'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야지.
- ⑤ [E]에는 '그 사람도'를 통해 '그 사람'과 공감의 이워지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해야지.

45 (나)와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5)

- ① (나)와 달리 (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다)는 시각을 청각화하여 선명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와 달리 (나)는 어순을 도치하여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명장 모의고사 6회 정답

1)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1: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

토론에서 사회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 순서 지정, 주장 정리, 대립 방지, 추가적 설명 요구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

확인 2: 질문을 통한 반박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해당한다. 질문을 통한 반박은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발언 순서 지정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 '먼저 반대 측에서 질문해 주십시오.'와 세 번째 발언 '자, 그럼 이제는 찬성 측에서 질문해 주십시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 양측의 주장 정리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 '찬성 측에서는 윤리적 측면에서 동물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인간과 동물의 생체적 차이를 근거로 들어 동물 실험 폐지를 주장했고, 이에 반대 측에서는 과학 및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 유지를 주장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 토론자들의 감정적 대립 방지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 '반대 측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 추가적 설명 요구

사회자의 네 번째 발언 '찬성 측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1: 토론에서의 쟁점

쟁점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이 상호 대립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확인 2: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은 유사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찬성 측에서는 '동물과 인간은 생체적으로 차이점이 많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에는 주로 쥐나 토끼, 침팬지와 같은 최후동물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인간과 아주 유사한 생체적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동물 실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찬성 2의 세 번째 발언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습니다.'에서 찬성 측에서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확인: 동물 실험은 유용하지 않다

찬성 1의 첫 번째 발언 '동물 실험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에서 찬성 측에서도 동물 실험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동물의 생명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반대 1의 첫 번째 발언 '저희도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에서 반대 측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생명 또한 존중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동물이 인간보다 육체적 고통을 덜 느낀다

찬성 1이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점을 들어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자, 반대 2도 '동물 실험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없음을 반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

(ㄴ)에 따르면,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이 1.1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인간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찬성 측에서는 (ㄴ)의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특징이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실험

(ㄱ)은 우주 공간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실험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확인: 동물 실험은 인간을 보호하는 방법

(ㄴ)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이 1.1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 측보다는 오히려 찬성 측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된 신약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④ 확인: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함

(ㄱ)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용함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고, (ㄴ)은 동물과 인간의 생체적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ㄴ)은 동물 실험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용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인류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ㄱ)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동물 실험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ㄴ)은 반대 측보다는 오히려 찬성 측에서 동물 실험의 무용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을 모두 근거로 삼아 반대 측에서 동물 실험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1: 친구의 감정이나 처지를 살피

소영은 다희의 감정과 처지를 살피 시간 활용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냐고 말하고 있다.

확인 2: 해결 방안의 제시

소영은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철저히 지키며 공부한다면 부모님의 염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다희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자기 오빠의 상황 제시

소영이 자기 오빠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다희 오빠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다희의 처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확인: 기분 전환을 해 볼 것을 제안

다희 부모님의 불안감이 다희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은 다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영이 제시한 방법은 부모님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볼 수 없다.

③ 확인: 각자의 입장을 분리할 것을 제안

소영은 다희 부모님의 불안과 다희의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는 다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확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조언

소영은 다희에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 부모님의 불안을 잠재울 좋은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을 다희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5)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상대를 치켜세움

소영은 지나치다 싶은 다희 부모님의 간섭을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희에게 위안의 말을 건네며 부담감을 덜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공통의 관심사 언급

중학교 때 친구인 다희와 만난 소영은 공통의 관심사인 '입시 준비'를 언급하며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② 확인: 상대의 최근 모습 환기

소영은 '얼굴을 찌푸리는 날이 많'은 다희의 최근 모습을 환기하며 다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확인: 상대방과 유사한 경험 제시

소영은 다희와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다희가 겪는 상황이 자신과 비슷함을 확인하며 다희의 말에 호응하고 있다.

④ 확인 1: 상대의 말을 부정

소영은 자신을 '모범생'으로 치켜세우는 다희의 말을 부정하고 있다.

확인 2: 자신을 낮추어 표현

소영은 자기 자신을 '철없는 어린애'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6)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밥상머리 교육, 식사 예절 교육

(다)를 보면, '정작 밥상머리 교육을 안다고 답한 사람도 예절 교육으로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라고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한 식사 예절 교육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를 활용하여, ㉔의 하위 항목에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식사 예절 교육 강화'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매체 발달, 자녀와의 대화 단절

'II-1'은 가정 교육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실태를 제시한 부분으로, (가)의 '요즘은 휴대 전화나 컴퓨터 등 자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매체가 넘쳐나고'를 통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확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시간 부족'

(보기 2)의 주제는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 회복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자.'이므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시간의 부족'은 문제점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다. (가)와 '(나)-1'을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시간 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확인: 가족 공동의 대화 주제 부족

'(나)-2'를 보면,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중 41.2%가 '가족 공동의 주제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으로 '가족 내 공동의 주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⑤ 확인: 가정의 기능 회복

(가)의 '가정에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라는 내용과 (다)의 '아무리 좋은 교육법이 나와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 유대감을 높이고 대화했던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문화입니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자녀의 인성 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활용하여, 결론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7)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문제 상황

최근 들어 청소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것이 문제 상황이 된다.

확인 2: 인과 관계

'최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가정 교육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가 원인이고, '청소년 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결과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문제 상황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지만, '인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확인: 인과 관계

'청소년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놀이 문화가 부재'한 현실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가정의 자녀 교육 기능 회복'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아니다.

④ 확인: 문제 상황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지만, '인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확인: 인과 관계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남'이 원인이고, '과거 밥상머리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결과에 해당하므로 인과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과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교육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8)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1: 대립된 관점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정보 바다'와 '정보 쓰레기'에 관한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확인 2: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관점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가 명확한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와 관련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대립된 관점 및 글쓴이의 주장 부재

'정보가 과잉으로 넘치다 보면, 유통 과정에서 정보가 변환되거나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는 현상에 대한 진단에 불과하다. 대립된 관점의 대비나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확인: 대립된 관점 및 글쓴이의 주장 부재

정보화 사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대립된 관점의 대비나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확인: 대립된 관점만 제시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아누스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대립된 관점만 나타나 있고, 글쓴이의 주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확인: 대립된 관점만 제시

'정보 과잉 시대'와 '정보 황금시대'라는 대립된 관점만 나타나 있고, 글쓴이의 주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

9)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개인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 구제화

'작문 일지'에서 글쓴이는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재능 기부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학생의 글'에서 봉사 활동에 관한 글감을 구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확인 2: 인식 변화 과정 제시 및 다짐

'학생의 글'에서 '지금껏 기부란 시간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텔레비전에 출연한 재능 기부자의 모습을 통해

‘시간과 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일도 봉사 활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㉔ 확인 1: 분류의 방식

‘분류’란 특정 기준에 따라 어떤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확인 2: 봉사 활동의 다양한 유형 제시

‘작문 일지’에서 봉사 활동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학생의 글’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인 재능 기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봉사 활동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㉕ 확인 1: 전문가의 견해 소개

‘학생의 글’에서는 봉사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확인 2: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작문 일지’에서 봉사 활동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10) 답: ㉓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 확인 1: 조사 사용의 적절성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㉓은 조사 사용이 적절하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라고’는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따라서 ‘라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힘들지 않으시냐’를 직접 인용하여 “‘힘들지 않으시냐.’라고 ~’의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㉔ 확인 1: 문장의 접속 관계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㉔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앞뒤 문장이 서로 상반되므로 ‘그리고’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㉔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거나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로 고쳐야 한다.

㉕ 확인 1: 글의 흐름 고려

1문단에서는 재능 기부의 개념 및 특성을 소개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글쓴이가 텔레비전에서 본 재능 기부자를 소개하고 있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㉓은 텔레비전에서 본 재능 기부자를 소개하고 있는 2문단의 맨 앞에 놓여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㉔ 확인 1: 문단의 통일성

‘학생의 글’ 2문단에서는 글쓴이가 텔레비전에서 시청한 적이 있는 재능 기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㉓은 재능 기부에 대한 평가가 다루어져 있어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문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㉓을 삭제해야 한다.

㉕ 확인 1: 단어 사용의 적절성

‘틀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이다. 문맥을 고려할 때 ㉓은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확인 2: 고쳐쓰기의 적절성

문맥을 고려할 때 ㉓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지닌 ‘다르’으로 고쳐야 한다.

11) 답: ㉔

㉔ 확인: 발이랑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따르면,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 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겨 발음한다. 그런데 ‘발이랑’은 ‘발’과 ‘이랑’이 결합된 합성어로, 이 경우 ‘이랑’의 ‘ㅣ’는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쪽’가 아니다. ‘발이랑’은 ‘ㄷ’음이 첨가되어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확인: 발이다

명사 ‘발’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㉒ 확인: 발이

명사 ‘발’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㉓ 확인: 발인

동사 ‘발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㉕ 확인: 받혀서

동사 ‘받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이다.

12) 답: ㉓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 확인: 접미사 ‘-거리다’의 기능

접미사 ‘-거리다’는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서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여기서 ‘-거리다’는 ‘꿈틀’이라는 부사에 붙어 ‘꿈틀거리다’라는 동사를 파생시켰으므로, 어근의 품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확인: 놀이

동사 ‘놀다’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명사로 파생된 단어이다.

㉒ 확인: 엇보다

동사 ‘보다’에 ‘몰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엇-’이 결합되어 파생된 단어이다.

㉔ 확인: 헛고생

‘헛고생’과 ‘헛듣다’는 각각 ‘고생’과 ‘듣다’에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이 결합되어 파생된 단어이다.

㉕ 확인: 새빨간

형용사 ‘빨강다’에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가 결합되어 파생된 단어이다.

13) 답: ㉓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 확인: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 ‘이예요’

‘동생’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이므로, ‘이예요’를 결합하면 ‘동생이예요’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확인: 모자예요

‘모자’와 같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㉒ 확인: 올챙이예요

‘올챙이’에 ‘이예요’를 결합하면 ‘올챙이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㉔ 확인: 나무예요

‘나무’와 같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나무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㉕ 확인: 경찰관이예요

‘경찰관’처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예요’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14) 답: ㉔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확인: 짧은 부정에 한하여 부정 표현 가능

ㄹ에서 ‘안 모르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지만, ‘모르지 않다’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ㄹ에서 ‘못 좋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지만, ‘안 좋다’,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다’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ㄹ의 ‘모르다’와 ㄹ의 ‘좋다’는 긴 부정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짧은 부정과 긴 부정

ㄱ의 '안 갔다'와 '못 갔다'는 짧은 부정 표현이고, ㄴ의 '일어나지 않았다'와 '일어나지 못했다'는 긴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② 확인: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이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이므로 ㄱ의 '안'과 ㄴ의 '않았다'는 의지 부정, ㄱ의 '못'과 ㄴ의 '못했다'는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③ 확인: 청유형에 사용되는 '말다' 부정문

ㄷ은 청유형 문장이므로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고, '가지 말다'와 같이 '말다' 부정문만 사용할 수 있다.

④ 확인: '못' 부정문

ㄹ의 '좋다'는 '좋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ㄴ의 '좋다'는 '못 좋다', '좋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다.

### 15)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

일반적으로 지시 표현은 가리키는 대상과 화자 및 청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때로 지시 표현은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때에는 물리적 거리 대신 심리적 거리가 나타나게 된다. ㉠은 청소를 하지 않고 간 혁구에 대한 선생님의 심리적 거리가 반영되어 있지만, ㉡은 '쓰레기통 주변'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은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은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

지시 표현은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다.

③ 확인: 지칭 대상의 위치

㉠은 지칭 대상이 철수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 반면, ㉡은 지칭 대상이 선생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철수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확인: 동일한 시·공간 공유

㉠과 ㉡은 각각 '혁구의 청소 구역', '쓰레기통 주변'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과 ㉡을 통해 선생님과 철수가 동일한 시·공간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확인: 철수의 경험 공유

선생님과 철수의 대화를 통해서 ㉠과 ㉡은 '철수가 영희와 다룬 일'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6)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주어가 2인칭으로 바뀌는 경우

ㄴ의 주어 '고원?'을 '네(네가)'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이 되므로, 올바른 의문문의 형태는 '-ㄴ다'를 사용한 '네 이제 었더?'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ㄱ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끝난다.

② 확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ㄴ은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ㅓ'의 형태로 끝나는 반면 현대 국어는 'ㅏ'의 형태로 끝난다.

④ 확인: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

ㄷ은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특이하게 '-ㄴ다'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⑤ 확인: 주어가 3인칭으로 바뀌는 경우

ㄷ의 주어 '네'를 '?리(말이)'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게 된다. 주어가 3인칭일 경우 '-ㄴ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엇테'를 고려하여 의문문의 마지막 모음이 'ㅓ'의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 17) 1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빌지킬은 마찰 저항을 이용하고 핀 안정기는 양력을 이용한다. 2문단에서는 마찰 저항을 이용하여 배의 흔들림을 줄이는 빌지킬에 대해 알 수 있고, 4문단에서는 양력을 이용하여 배의 흔들림을 줄이는 핀 안정기에 대해 알 수 있다.

### 18) 5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선원들은 배가 기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문의 내용 중에 안티 롤링 탱크의 U자형 관 안의 물도 동일한 역할을 하여 배의 흔들림을 줄여 준다. 그러므로 지문의 U자형 관 안의 물과 <보기>의 선원들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19) 3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배가 (가) 방향으로 기운다고 했으므로 ㉠은 위로 향하는 양력이 필요하고, ㉡은 아래로 향하는 양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이고, ㉡의 뒤쪽은 위로 움직여야 한다.

### 20) 1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로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맞추다'는 '어떤 것을 무엇에 맞도록 하다.'의 뜻이므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조절'이다.

### 21) 5

[출제의도] 단락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드러내면서 바이러스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만 제시하고 있을 뿐 바이러스의 다양한 역할이나 기능이 따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2) 4

[출제의도] 핵심 내용에 드러난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ㄷ에서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만들어진 효소가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가 바이러스에 힘을 가하여 대량 증식을 일으키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재조합 DNA가 쓰인다. ②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바이러스는 유전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③ 숙주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황이므로 숙주 세포를 그대로 둔 채 바이러스만 죽이는 것이 힘들다. ⑤ 조립 과정은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합성된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23) 1

[출제의도] 본문과 자료를 통해 타당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현대 의학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을 외부에서 합성하여 인체에 보충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인슐린을 합성하여 보충하는 것보다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에 드러난 현대의 당뇨병 치료법이 동물에게서 인슐린을 얻어내던 과거의 방법에 비해 크게 발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보기>

와 관련지어 볼 때에는 근본적인 당뇨병 치료를 이루어 내지는 못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4) 1

[출제의도] 글쓴이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용한 서술 전략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핵심으로 삼은 개념은 감성(감각을 지각으로 인식하는 힘)이다. 감성의 형식적 틀인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기까지의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글이다. 개념 자체의 변화 과정은 다루지 않고 있다.

25) 3

[출제의도] 관련 맥락의 글을 읽고 제시문의 입장에서 비판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칸트는 인간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인식의 틀로 공간과 감각을 들고 있다. 공간과 감각은 경험과 무관하게 있는, 감각을 정리하고 지휘하는 인식의 틀이다. 결국 칸트는 경험주의자와는 달리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인간의 인식적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인식 주체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할 철학자라 할 수 있다.

26) 3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내포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간과 시간은 감각을 지각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틀이다. 다시 말하면 감각을 지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분류와 정리의 기준인 것이다. 지각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 아니다. 지각을 정리하여 개념으로 만드는 데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범주라고 한다.

27) 1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컴퓨터 구입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더 많은 상품이 판매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28) 4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단독 가게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백화점을 이용하면, 한 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탐색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한계 비용 곡선 MC는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29) 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여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보를 추가로 얻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이 정보를 통해 절약할 수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과 같이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의 이유는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30) 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어떤 일에 기울이는 마음이나 노력'을 뜻한다. ㉠번 또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1) 4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가)와 달리 '바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32) 4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전체적인 사상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백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 반면에 '사람들'은 백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가)는 '백로'의 모습에 대한 대비적 이해를 통해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백로를 물고기를 잡아먹겠다는 욕심 즉, 기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백로를 고고한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33) 5

[출제의도] 새로운 자료를 참고하여 작품을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만고의 허다 영웅'은 화자가 생각하기에 바위의 참된 가치를 알고 반가워하던 훌륭한 선인들이다. 그런데 <제8수>에서 바위는 화자를 '만고의 허다 영웅'에 포함시켜 '오늘사 너를 만나니 시운인가 하노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화자 자신을 영웅과 비슷한 인물로 이끌어 올린 것이지 바위를 고고하게 치켜 올린 것이 아니다.

34) 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전우치의 말('소신이 황제를 숙인 이유는 ~ 사신을 보낸 것이옵니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치의 말에서 '조선을 소국이라고 업신여기웁기로 소신이 비록 어리고 철이 없사오나 그 일이 통분하여'를 보면 전우치가 대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35) 3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나)는 임금이 경험하는 비현실적 체험에 주목하여 사건이 전개될 뿐 전우치의 행위나 전우치가 중국에서 행한 일에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은 드러나지 않는다.

36) 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임금은 전우치가 재주를 부려 임금 자신의 의식을 조종한 것에 대해 기억을 못한다. 이에 전우치는 임금의 경험을 다 말하여 자신이 조종한 행위임을 일깨우고 있다.

37) 1

[출제의도] 한자성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임금이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따라서 ㉠ 백척간두(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를 통해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 38) 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명식을 관찰하고 있는 지연이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서술자는 지연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지연이라는 인물이 서술하는 것처럼 하여 지연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39) 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명식의 변장에서 지연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동정과 스스로의 감동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에서처럼, 지연은 2층 서재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명식을 동정하고 있다. 또한 지연은 명식이 2층 서재에서 가면을 쓰고 휴식과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40) 5

[출제의도] 인물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오히려 변장을 돕고 나섰다. 명식이 2층 서재로 들어박히는 것을 절대로 아는 체하지 않았다. 밤 외출의 유혹을 느끼는 눈치가 보이던 의등을 끄고 자신의 침실로 숨어 들어가 버림으로써 은밀스럽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에서 추리할 수 있다.

## 41) 5

[출제의도]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명식은 최연소로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현재는 직업이 관사일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명식은 사무실에서 귀가할 때 피곤해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나면 활기를 얻고 있다. <보기>에 의하면, 이것은 페르소나에서부터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를 그림자 측면으로 극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2) 2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눈 오는 날 떠난 '순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저승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다)는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린 '나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43) 4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 ㉡과 마찬가지로 순이를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눈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자를 안내하는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4) 4

[출제의도] 글쓴이의 창작 의도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D에서 '새로 말하면'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여 시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추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C에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으나 '그 사람'이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화자의 심경이 드러나 있다. ㉤ E에서는 '그 사람'도 설움으로 살았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통해 그 사람이

현재 나의 심정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45) 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감나무쭝 되랴'에 설의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 (다)의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에서 의인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의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에서 시각을 청각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1연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나)에서는 '~물라!', (다)에서는 '-었네.'가 포함된 문장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